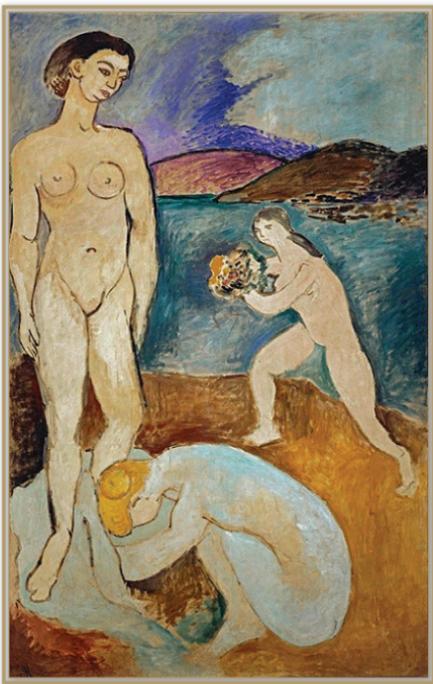


그림 여행



룩스 I (Le Luxe I c. 1907)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 - 1954)  
(캔버스에 유채 210 cm x 138 cm 파리 퐁피두 센터)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흔히 야수와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속 자유롭고 호방한 색채와 표현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지만 사실 그의 긴 작품 인생을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규정지을 수 없는 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

프랑스 북부 시골에서 태어난 마티스는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고 법원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1889년에 맹장수술을 받은 후 회복기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놀라운 열정은 마티스를 화가의 길로 인도했고 현대 미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대가의 탄생을 예고했다.

화가로서 마티스가 걸어 간 여정은 그의 그림 속에 잘 나타난다. 전통적 구상화에서 시작해 인상파의 영향도 받았고, 다양한 회화 양식과 빛의 기법들을 실험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 구상화였던 초기에서 그의 작품세계가 깊어질수록 그림들은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변해갔는데 그의 마지막 작품들은 색종이 오리기로 화면을 구성한 매우 현대적인 그림들이다.

'룩스 I'은 그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그림이다. '룩스 I'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1904년에 그려진 '룩스, 정적과 관능'이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점묘 화법으로 화려하고 섬세하게 그려진 그림이다. 구도와 색채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룩스 I'은 오리지널 그림의 구도를 과감히 단순화했지만 색채와 질감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룩스 I'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룩스 II'라는 작품이다. 구도는 거의 평면적이고 색채는 원색으로 강렬하게 남아 마티스 말년 작품의 디자인적 요소를 아낌없이 보여준다. 오르세 미술관의 오리지널 '룩스, 정적과 관능'을 먼저 보고 덴마크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마지막 '룩스 II'를 본 후에 과도기적 작품인 이 '룩스 I'을 보았는데, 한 화가의 예술적 여정을 보는 것 같아 큰 감동을 느꼈다.

잡다한 모든 것은 제거되고 중요한 본질만 오롯이 남아 빛나는 듯한 그림이다.

《김동백》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최고품질 전통 특산물

팔도 우수 농수산물

- 젓갈류 • 반찬류 • 건어물 • 해초류 • 나물류
- 기호식품 • 장류 • 약초류 • 효소 기타



농수산 마트 T.714-403-1230

1811 W Commonwealth Ave. #M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옆)

구이마을

대창구이, 곱창구이, 막창구이  
푸짐하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난  
참숯불 구이 • BBQ 콤보



714.484.9292  
8535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복사기 무료 1st month FREE

복사기 렌탈! 판매! 서비스!

B&W Rent \$75~  
Color Rent \$100~

FBM RENT PROGRAM

- FREE Copier, Finisher
- FREE Toner, Part, Labor
- FREE Network, Print, Scan
- Flexible Program ▪ Fast Service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E-mail : fbm9044@hotmail.com / www.fbmcopiers.com

800.582.3321

562.802.9044